

##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성실시공으로 품질을 향상시켜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종학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협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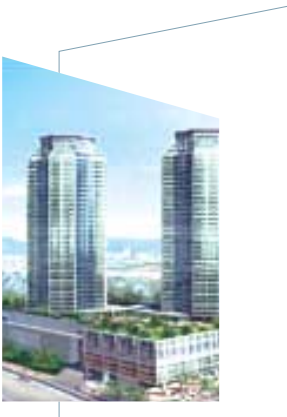
아울러 오늘 총회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승일 명예회장님과 홍평우 명예회장님, 이찬재 설비조합 이사장님 그리고 전국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공공건설투자의 감소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건설산업의 불황이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며, 국가 경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건설산업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도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선진화 전



략"을 발표하고, 일반·전문건설업종 통합 등 우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협회 집행부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회원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상의 애로 해소와 업역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옥내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물량 확대를 비롯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여러 발주 기관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의 상향 조정,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그리고 PQ 심사시 건설재해율 심사폐지, 물가연동제 조정기준 변경 등, 많은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지난 89년 창립이래, 건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만큼 위상확립에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대학의 기계설비 관련학과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32개 대학의 설비학과가 금년에 14개 대학으로 줄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기계설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기계설비 관련학과가 폐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업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 세대 육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협회는 기계설비공동단체인 기계설비협회의 회와 협력하여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정책 변화와 건설경기 위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물량 부족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반드시 제값을 받고 성실시공으로 품질향상을 하는 것만이 우리 업계 전체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오늘 총회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 협회가 추진한 사업 실적을 비롯하여 일반회계 및 회보지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총회에 앞서 전국 시·도회장 회의와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바 있으나, 대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업계와 협회의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만큼, 대의원 여러분께서 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사업이 일익번창하시고, 우리 설비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사랑 받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